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16. 제24권 제3호. pp. 215-230.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16. Vol. 24, No. 3, pp. 215-230.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오광진**(한국복지대학교)

초 록

이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에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응답자 7명은 제외하고 총 224명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김병준과 오수학(2008)이 제안한 3단계 타당화 과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문화 8요인(인적 네트워크, 승리주의, 특수성 강조, 비체계적 지원, 이론 경시, 위계질서, 관계 중시, 편향적 인식) 56문항을 추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후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2문항을 추출하였으며,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6요인 26문항을 추출하였다. 셋째,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6문항을 가지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6요인 23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에서 장애인 스포츠문화 척도는 하위 요인별로 개념 및 내용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장애인체육, 특수체육, 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4721)
** kunokj11@hanmail.net

Ⅰ. 서론

체육학에서 체육영역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한다. 장애인체육학은 체육영역에 재활체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으로 판정받기 전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재활체육[1]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관할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체육을 관할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영역 중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국 장애인 체육문화를 주도하는 체육분야는 전문체육[2]분야이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를 넘나들면서 장애인 체육문화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행에 젖어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문화[3]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문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의 개념이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서근원, 2007)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근원(2007)이 정의한 문화의 개념, 즉 '문화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상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고유한 안목(4:10-11)' 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의 정의는 인간을 '되어 있는(being) 존재'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되어 가는(becoming) 존재'로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서근원, 2007). 이에 이 연구에서 문화란 서근원(2007)이 사용한 개념을 차용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상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고유한 안목이 사회 속에서 인간 개인의 사고 틀 혹은 체계로 고착화된 관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 집단 내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문화전승 혹은 문화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집단 사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문화전파 혹은 문화접변으로 설명할 수 있다(서근원, 2007). 이러한 의미는 지구상의 인간은 각 민족이나 집단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행위하며,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세대 간에 전승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가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전파될 때 다른 집단에는 그 집단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며, 새로운 문화는 기존문화의 접변 과정을 거치면서 전파된다(서근원, 2007)는 사실이다. 장애인 스포츠문화 역시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아니며, 다른 문화와 끊임없이 접촉하여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체육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문화가 어떤 현상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 개념은 흔히 관념과 행위로 구분하기도 한다. Harris(1999)는 행위가 관념을 유도한다(pp. 19-29)고 보았으며, 문화는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전승되고, 문화 진화의 압력에 의해서 행위로 드러나는 정보의 기초단위라고 하였다(Durham, 1992). 반면, Geertz(1973)는 문화를 관념의 차원에서 규정하여, '문화는 우리의 정신 안에 있고, 이러한 정신 속에 있는 문화가 행위를 유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화를 보는 관점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와 행위의 산물, 그

1)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보장에 관한 법률(2015.12.29제정)에서는 재활 운동 및 체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하 전문체육을 장애인스포츠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을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했지만 의미는 같음을 밝혀둔다.

리고 그런 행위를 낳는 사고 등을 망라하여 문화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화를 공유된 인간학습의 소산으로서, 현상세계의 경험을 조직하는 표준(standard)들로 이루어진 것 혹은 인간의 행동이나 문화재같이 겉에 나타난 표현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규칙 또는 표준(김영찬, 1984)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문화 속에 존재하는 각 개인의 관념, 즉, 구조, 틀, 체계 등에 주목하여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 속에 존재하는 장애인 스포츠문화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간은 특정한 집단 속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화를 소유하고 변화하는, 성장하는 존재로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화라는 용어는 적어도 장애인 스포츠현장에서 장애선수,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인체육행정가들이 지각하고 있는 고유한 사고를 구조, 틀, 체계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이를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문화는 후속 연구에서 각각의 하위 연구주제로 삼아 다른 연구주제를 파생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특수체육학에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은 김용국과 성창훈(2007), 서은철과 김지태(2015) 오광진(2012), 오광진과 이현수(2005), 그리고 이현수(200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척도개발과 관련된 연구방법과 연구기법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 속에 존재하는 스포츠문화가 어떤 현상으로 존재하는지를 밝혀, 이를 측정도구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 속에 존재하는 문화는 어떤 현상을 가졌는지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문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문화 관련 문항 내용은 향후 장애인 스포츠현장에서 문화요소들을 분류 및 구분하여 활용하게 하는데 이차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이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2015년 현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적어도 1년 이상 활동해왔거나, 특수체육(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2, 3,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특히, 특수체육과 학생들은 적어도 1년 이상 특수체육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가 다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보다 넓고, 일선 장애인체육 현장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장애인스포츠지도자로 불러도 좋겠다는 특수체육 박사 2인과 교수 1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체육현장에서 장애인체육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장애인체육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애인스포츠지도자로 분류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차 연구에서 예비판 척도를 작성한 후 2차 연구(설문조사)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명을 제외한 224명을 연구대상자으로 하였다.

설문지 수집과정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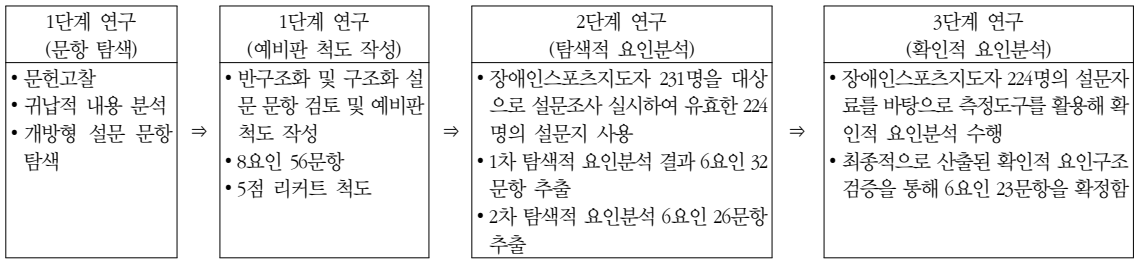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

2.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

이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병준과 오수학(2008)이 제안한 3단계 타당화 프로그램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 1단계 연구

1단계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개별 및 집단 면담에서 획득한 개방형 설문 내용을, 델파이 방법(이종성, 2001)을 사용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자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반구조화 문항(semi-structured items)과 구조화된 문항(structured items)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검토와 포괄적으로 수집한 양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한 예비판 척도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첫째,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포괄적인 내용 범주에 포함하였다. 둘째, 일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5명, 특수체육학 박사 3명 등에게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자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델파이 방법을 사용해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일선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자질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반구조화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즉,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와 간단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로 검증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구조화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때 각 문항은 장애인 스포츠문화 내용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5점에 가까울수록장애인 스포츠문화가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장애인 스포츠문화 예비판 척도는 8요인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인적 네트워크 6문항, 승리주의 6문항, 특수성 강조 7문항, 비체계적 지원 7문항, 이론 경시 5문항, 위계질서 9문항, 관계 중시 8문항, 편향적 인식 8문항이었다.

2) 2단계 연구

2단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224명)를 토대로 장애인 스포츠문화 내용을 대표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들의 특정 문항들이 이론 구조에 적합한지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해 알아보았다(Benson, 1998).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중도에 설문 응답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사전에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며, 특수체육과 대학생들에게는 학과장님께 동의를 얻어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가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설문문항을 응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차 탐색적 요인분석(6요인 32문항)과 2차 탐색

적 요인분석(6요인 26문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3인(특수체육 박사 2명, 스포츠심리학 박사 1명)이 검토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6요인 26문항)과 2차 확인적 요인분석(6요인 23문항)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를 확정하였다(Benson, 1998).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기입한 자료들을 회수한 후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극단 값도 아웃라이어(outlier)를 통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자료분석을 하였다. 이후 자료로서 분석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맞게 통계처리를 하였다. 특히, 신뢰도 검사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장애인 스포츠문화와 관련된 문헌고찰, 개방형 설문을 이용한 장애인 스포츠문화 요인에 대한 개괄적 자료수집, 장애인 스포츠문화 요인에 대한 개인 및 인터넷(현장 장애인스포츠지도자 5인, 특수체육학 박사 3명) 면담을 근거로 장애인 스포츠문화 예비판 척도 문항은 8요인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장애인 스포츠문화 예비판 척도 문항

문항	내용	문항	내용
sc1.	장애인스포츠는 인맥이 중요하다.	sc29.	장애인스포츠는 체육이론이 부족하다.
sc2.	장애인스포츠는 학연이 중요하다.	sc30.	장애인스포츠는 이론적 접근이 부족하다.
sc3.	장애인스포츠는 특정인 위주로 움직인다.	sc31.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sc4.	장애인스포츠는 남성 중심적이다.	sc32.	장애인스포츠는 권위적이다.
sc5.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선수의 영향력이 크다.	sc33.	장애인스포츠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
sc6.	장애인스포츠는 비장애인에게 배타적이다.	sc34.	장애인스포츠는 군대식 문화가 있다.
sc7.	장애인스포츠는 일등만 중시한다.	sc35.	장애인스포츠는 파벌이 존재한다.
sc8.	장애인스포츠는 성과 위주다.	sc36.	장애인스포츠는 경직성이 있다.
sc9.	장애인스포츠는 금메달 중심적이다.	sc37.	장애인스포츠는 폐쇄적이다.
sc10.	장애인스포츠는 결과를 중시한다.	sc38.	장애인스포츠는 예의를 중시한다.
sc11.	장애인스포츠는 일류 선수를 좋아한다.	sc39.	장애인스포츠는 선후배를 강조한다.
sc12.	장애인스포츠는 경쟁적이다.	sc40.	장애인스포츠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sc13.	장애인스포츠는 전문적이다.	sc41.	장애인스포츠는 결속력이 강하다.
sc14.	장애인스포츠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sc42.	장애인스포츠는 단합을 강조한다.
sc15.	장애인스포츠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움직인다.	sc43.	장애인스포츠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sc16.	장애인스포츠는 역동적이다.	sc44.	장애인스포츠는 보수적이다.
sc17.	장애인스포츠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sc45.	장애인스포츠는 지도자와 관계를 중시한다.
sc18.	장애인스포츠는 한계에 도전한다.	sc46.	장애인스포츠는 이해와 화합을 중시한다.
sc19.	장애인스포츠는 특정 장애유형만 참여한다.	sc47.	장애인스포츠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한다.
sc20.	장애인스포츠는 체계가 없다.	sc48.	장애인스포츠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sc21.	장애인스포츠는 홍보가 부족하다.	sc49.	장애인스포츠는 편견이 존재한다.
sc22.	장애인스포츠는 지원이 부족하다.	sc50.	장애인스포츠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sc23.	장애인스포츠는 특색이 없다.	sc51.	장애인스포츠는 장벽이 존재한다.
sc24.	장애인스포츠는 계획적인 지원이 없다.	sc52.	장애인스포츠는 재미가 없다.
sc25.	장애인스포츠는 형평성 있는 지원이 없다.	sc53.	장애인스포츠는 획일적이다.
sc26.	장애인스포츠는 단기간 운동 프로그램이 많다.	sc54.	장애인스포츠는 수준이 낮다.
sc27.	장애인스포츠는 운동기술을 중시한다.	sc55.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sc28.	장애인스포츠는 실기능력을 중시한다.	sc56.	장애인스포츠는 배우기가 쉽다.

sc는 문항을 의미함

즉, 인적 네트워크 요인은 sc1～sc6, 승리주의 요인은 sc7～sc12, 특수성 강조는 sc13～sc19, 비체계적 지원 요인은 sc20～sc26, 이론 경시 요인은 sc27～sc31, 위계질서 요인은 sc32～sc40, 관계 중시 요인은 sc41～sc48, 편향적 인식 요인은 sc49～sc56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 평행선 분석

장애인 스포츠문화 척도의 요인구조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행된 평행선 분석은 자료 내에 있는 의미 있는 요인수효가 존재한다면, 이때 추정된 eigen-value는 random data에서 추출한 eigen value 보다 크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Timmerman & Lorenzo-Seva, 2011). 즉, 이 연구에서 수집한 224명에서 추출한 원 자료의 eigen-value<그림 2>가 평행선 분석을 통해 추출한 random data의 95% 신뢰구간이 eigen-value보다 큰 경우, 의미 있는 요인 수라고 보는 방법이다(Timmerman & Lorenzo-Seva, 2011).

<표 2>와 같이 평행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부터 6요인까지는 원 자료의 eigen-value가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eigen-value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7요인부터는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eigen-value가 원 자료의 eigen-value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행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의 요인수효는 6개 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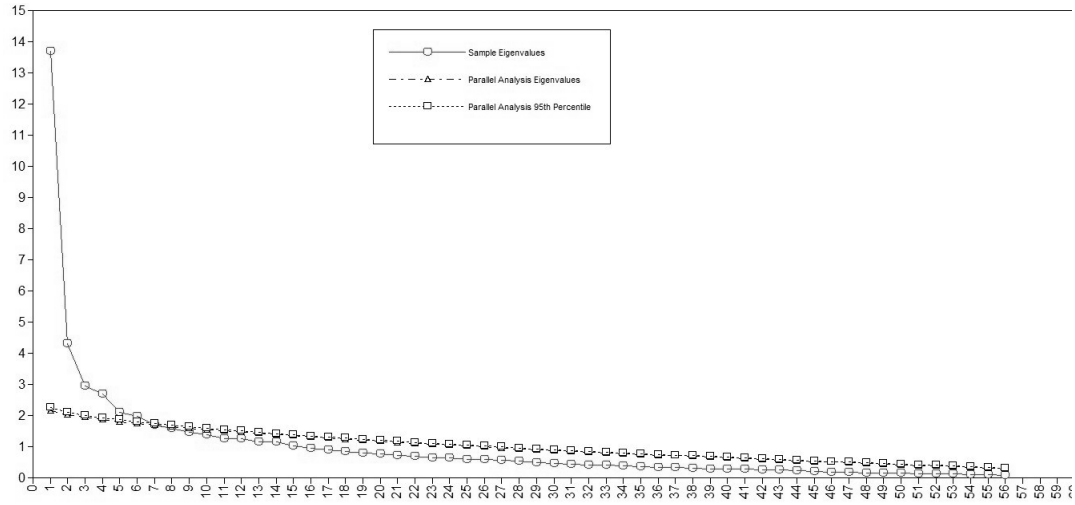

그림 2. 평행선 분석결과의 Scree Plot

표 2. 경험자료의 고유값과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고유값의 비교

요인수	자료의 고유값 (S_Eigen)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고유값 (R_95Eigen)	비교
1	13.699	2.259	S_Eigen 〉 R_95Eigen
2	4.301	2.107	S_Eigen 〉 R_95Eigen
3	2.955	2.006	S_Eigen 〉 R_95Eigen
4	2.690	1.929	S_Eigen 〉 R_95Eigen
5	2.111	1.866	S_Eigen 〉 R_95Eigen
6	1.974	1.798	S_Eigen 〉 R_95Eigen
7	1.694	1.741	S_Eigen 〈 R_95Eigen

2. 탐색적 요인분석

평행선 분석을 통해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는 6개의 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론적으로 구성된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는 8개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므로, 6~8개의 요인으로 고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Devellis, 2012). 그 결과, 7, 8개 요인구조는 각 문항이 다른 요인에 부하되는 경우(.4 이상)를 지속적으로 제거한 결과, 적합한 요인구조를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 요인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요인에 부하되는 중복문항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6개의 요인이 적절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에 제시한 요인구조를 통해 요인의 정의를 수행하였다. 먼저 1번 요인은 전반적으로 군대식 문화, 강압적 분위기, 파벌 존재, 권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계질서”로 정의하였다. 2번 요인은 에너지, 역동적, 한계 도전 등의 내용이 부각되므로, “특수성 강조”로 정의하였다. 3번 요인은 선입견,

표 3.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5	6
sc34	군대식 문화	.893	.020	.060	.025	-.082	.089
sc33	강압적 분위기	.864	.011	-.004	.033	.026	-.010
sc35	파벌 존재	.655	.047	.034	-.141	-.107	-.138
sc32	권위적	.641	-.020	-.058	.043	.026	-.217
sc40	수직적 위계질서 강조	.624	.078	-.048	.063	-.181	.046
sc37	폐쇄적	.560	-.009	-.143	-.042	.028	-.234
sc36	경직성	.530	-.038	-.212	-.100	.048	-.128
sc54	수준이 낮음	.500	-.249	-.095	-.028	.060	-.042
sc31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449	.094	-.135	-.138	.059	-.129
sc17	에너지가 느껴짐	.036	.773	.043	-.080	.109	.126
sc16	역동적	.063	.635	-.047	-.048	.088	.022
sc42	단합 강조	.019	.567	.103	.059	-.134	.036
sc41	결속력 강함	-.077	.493	.149	.014	-.162	-.060
sc18	한계 도전	-.050	.460	-.146	-.035	.030	.157
sc28	실기능력 중시	.016	.451	-.079	.024	.046	-.250
sc50	선입견 존재	.029	.053	-.909	.035	-.040	.051
sc49	편견 존재	-.048	-.057	-.826	.004	-.065	-.063
sc55	고정관념 존재	.082	-.058	-.646	-.007	-.042	-.023
sc51	장벽 존재	.127	.021	-.591	-.069	-.044	-.055
sc24	계획적 지원 없음	.108	-.157	.168	-.895	-.004	-.060
sc25	형평성 지원 없음	.092	.005	.066	-.765	.015	-.029
sc22	지원 부족	-.177	.030	-.124	-.645	-.074	.011
sc21	홍보 부족	-.035	.241	-.181	-.546	-.055	.034
sc2	학연 중요	.025	-.047	-.053	-.019	-.814	-.018
sc1	인맥 중요	.001	.020	-.043	-.035	-.786	-.070
sc3	특정인 위주 움직임	.188	-.002	-.126	-.084	-.516	-.060
sc10	결과 중시	-.012	.006	-.027	.039	.007	-.922
sc9	금메달 중심적	.036	.017	.029	-.012	-.047	-.867
sc8	성과 위주	.000	-.006	.002	-.087	-.067	-.858
sc7	일등만 중시	.017	-.005	.002	-.042	-.014	-.825
sc11	일류 선수 좋아함	.085	-.124	-.063	.031	-.124	-.598
sc6	비장애인에게 배타적	.174	.009	-.083	-.075	-.003	-.430
	eigen-value	9.498	2.687	1.906	1.673	1.328	1.163
	분산	29.681	8.397	5.957	5.227	4.150	3.634
	누적	29.681	38.078	44.035	49.262	53.412	57.047

편견, 고정관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향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4번 요인은 계획적 지원 부재, 형평성 지원 부재, 지원 부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체계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5번 요인은 학연, 인맥, 특정인 중심 움직임의 내용이 포함되어, “인적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마지막 6번 요인은 결과 중시, 성과 위주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승리주의”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요인에 대한 정의를 수행한 후, 각 개별 문항의 내용이 요인의 정의와 일치되는 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재수행하였다(DeVellis, 2012).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위계질서 요인의 sc54(수준이 낮음), sc31(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문항은 위계질서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제한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특수성 강조 요인의 sc42(단합 강조), sc41(결속력 강함), sc28(실기능력 중시), 승리주의 요인의 sc6(비장애인에게 배타적) 문항 역시 해당하는 요인과 일치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상기의 6문항을 제거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내용처럼, 각 문항의 개념은 소속된 요인과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고, 요인계수 역시 .4 값 이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다른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요인 간의 상관은 -.436 ~ .571 사이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결과는 추정된 장애인스포츠 문화의 하위요인이 통계

표 4.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위계질서	비체계적 지원	편향적 인식	특수성 강조	인적 네트워크	승리주의
sc34	군대식 문화	.886	-.007	.037	-.023	-.048	-.092
sc33	강압적 분위기	.869	-.024	-.015	.002	.043	.009
sc35	파벌 존재	.674	.152	.022	.011	-.078	.115
sc40	수직적 위계질서 강조	.627	-.057	-.046	.056	-.166	-.053
sc32	권위적	.606	-.043	-.078	-.029	.029	.221
sc37	폐쇄적	.575	.057	-.164	-.023	.070	.224
sc36	경직성	.542	.113	-.235	-.038	.089	.120
sc24	계획적 지원 없음	.110	.895	.140	-.144	.016	.045
sc25	형평성 지원 없음	.082	.752	.054	.032	.015	.036
sc22	지원 부족	-.144	.660	-.130	.009	-.043	-.030
sc21	홍보 부족	-.037	.533	-.165	.215	-.073	-.029
sc50	선입견 존재	.019	-.039	-.927	.067	.004	-.040
sc49	편견 존재	-.044	-.003	-.828	-.041	-.031	.045
sc55	고정관념 존재	.067	.013	-.657	-.059	-.016	.009
sc51	장벽 존재	.108	.070	-.611	.007	-.011	.058
sc17	에너지가 느껴짐	.017	.007	.139	.937	.027	.015
sc16	역동적	.035	-.004	.014	.693	.015	.083
sc18	한계 도전	-.036	.002	-.088	.513	-.018	-.098
sc2	학연 중요	-.025	-.026	.023	-.027	-.909	.010
sc1	인맥 중요	-.016	.020	.009	-.013	-.780	.056
sc3	특정인 위주 움직임	.171	.058	-.081	.028	-.538	.052
sc10	결과 중시	-.030	-.049	-.030	.023	.019	.946
sc9	금메달 중심적	.016	-.001	.029	.033	-.032	.901
sc8	성과 위주	-.007	.080	-.001	-.003	-.058	.852
sc7	일등만 중시	.006	.027	.001	.021	-.007	.836
sc11	일류 선수 좋아함	.072	-.035	-.068	-.114	-.104	.598
	eigen-value	8.492	2.443	1.800	1.395	1.296	1.108
	분산	32.662	9.394	6.924	5.367	4.985	4.262
	누적	32.662	42.057	48.981	54.348	59.333	63.596

표 5.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간 상관행렬

요인	위계질서	비체계적지원	편향적 인식	특수성 강조	인적 네트워크	승리주의
위계질서	1.000					
비체계적지원	.170	1.000				
편향적 인식	-.436	-.289	1.000			
특수성 강조	-.096	.140	-.089	1.000		
인적 네트워크	-.328	-.220	.290	-.038	1.000	
승리주의	.571	.244	-.319	-.185	-.362	1.000

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을 나타내므로, 판별타당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DeVellis, 2012). 따라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는 6요인 26문항으로 선정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6요인 26문항을 토대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추천되는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판단하였고, 이때 CFI, TLI는 >.9, RMSEA는 <.08 기준을 임계치로 설정하였다(홍세희, 2000).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597.338(p<.001), df=284, TLI=.899, CFI=.912, RMSEA=.070 으로 나타나, 비록 TLI 값이 임계치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CFI와 RMSEA 지수가 적합하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잠재변수가 설명하는 표준

표 6.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위계질서	sc36	경직성	1.000	준거변수	.748	준거변수
	sc37	폐쇄적	1.103	.089	.809	12.355***
	sc32	권위적	.990	.085	.768	11.674***
	sc40	수직적 위계질서	.796	.083	.640	9.560***
	sc35	파벌 존재	1.084	.089	.796	12.133***
	sc33	강압적 분위기	1.042	.081	.836	12.829***
	sc34	군대식 문화	.984	.081	.794	12.108***
비체계적 지원	sc21	홍보 부족	1.000	준거변수	.523	준거변수
	sc22	지원 부족	1.119	.171	.597	6.535***
	sc25	형평성 지원 없음	1.661	.214	.843	7.754***
	sc24	계획적 지원 없음	1.675	.215	.873	7.787***
편향적 인식	sc51	장벽 존재	1.000	준거변수	.694	준거변수
	sc55	고정관념 존재	1.022	.111	.663	9.248***
	sc49	편견 존재	1.295	.110	.866	11.811***
	sc50	선입견 존재	1.423	.116	.924	12.230***
특수성 강조	sc17	에너지가 느껴짐	1.000	준거변수	.993	준거변수
	sc16	역동적	.642	.096	.646	6.685***
	sc18	한계 도전	.538	.094	.488	5.737***
인적 네트워크	sc2	학연 중요	1.000	준거변수	.849	준거변수
	sc1	인맥 중요	.957	.082	.823	11.710***
	sc3	특정인 위주 움직임	.761	.076	.673	10.006***
승리주의	sc10	결과 중시	1.000	준거변수	.911	준거변수
	sc9	금메달 중심적	1.010	.046	.908	21.771***
	sc8	성과 위주	1.047	.051	.886	20.454***
	sc7	일등만 중시	.892	.048	.847	18.450***
	sc11	일류 선수 좋아함	.731	.054	.723	13.609***
모형 적합도			$X2$=597.338(p<.001), df=284, TLI=.899, CFI=.912, RMSEA=.070			

***p<.001

표 7.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문항내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신뢰도
위계질서	sc37	폐쇄적	1.000	준거변수	.804	준거변수	.874
	sc32	권위적	.930	.073	.791	12.809***	
	sc40	수직적 위계질서	.707	.074	.623	9.573***	
	sc35	파벌 존재	.983	.077	.791	12.796***	
	sc33	강압적 분위기	.915	.070	.805	13.083***	
비체계적 지원	sc22	지원 부족	.608	.074	.554	8.176***	.802
	sc25	형평성 지원 없음	.977	.086	.848	11.335***	
	sc24	계획적 지원 없음	1.000	준거변수	.892	준거변수	
편향적 인식	sc51	장벽 존재	1.000	준거변수	.694	준거변수	.864
	sc55	고정관념 존재	1.021	.110	.663	9.246***	
	sc49	편견 존재	1.294	.110	.866	11.807***	
	sc50	선입견 존재	1.424	.116	.924	12.229***	
특수성 강조	sc17	에너지가 느껴짐	1.872	.330	.996	5.668***	.732
	sc16	역동적	1.195	.173	.644	6.909***	
	sc18	한계 도전	1.000	준거변8	.487	준거변수	
인적 네트워크	sc2	학연 중요	1.000	준거변수	.850	준거변수	.819
	sc1	인맥 중요	.955	.082	.823	11.706***	
	sc3	특정인 위주 움직임	.761	.076	.673	10.008***	
승리주의	sc10	결과 중시	1.000	준거변수	.911	준거변수	.931
	sc9	금메달 중심적	1.011	.046	.909	21.834***	
	sc8	성과 위주	1.046	.051	.885	20.428***	
	sc7	일등만 중시	.891	.048	.847	18.445***	
	sc11	일류 선수 좋아함	.731	.054	.723	13.624***	
모형 적합도			$X2$=349.609(p<.001), df=215, TLI=.947, CFI=.955, RMSEA=.053				

***p<.001

화계수는 .488 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 그러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살펴본 결과, sc21, sc34, sc36 문항에서 일차원성이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은 다른 요인 혹은 문항에 의해 설명되는 다차원성을 보유한 문항이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DeVellis, 2012).

문제가 있는 3문항을 제거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349.609(p<.001), df=215, TLI=.947, CFI=.955, RMSEA=.053으로 나타나, TLI, CFI, RMSEA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가 설명하는 표준화계수는 .487 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표 7>, 요인에 따라 .732~.931 범위를 나타내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아울러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93~.691 범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판별타당도 역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각 잠재변수의 개념타당도, 판별타당도, 내적일관성신뢰도를 만족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6요인 23문항을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로 확정하였다<그림 3>.

표 8.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 간 상관행렬

요인	위계질서	비체계적지원	편향적 인식	특수성 강조	인적 네트워크	승리주의
위계질서	1.000					
비체계적지원	.294	1.000				
편향적 인식	.508	.243	1.000			
특수성 강조	-.156	.032	-.023	1.000		
인적 네트워크	.418	.236	.315	-.041	1.000	
승리주의	.691	.313	.333	-.193	.4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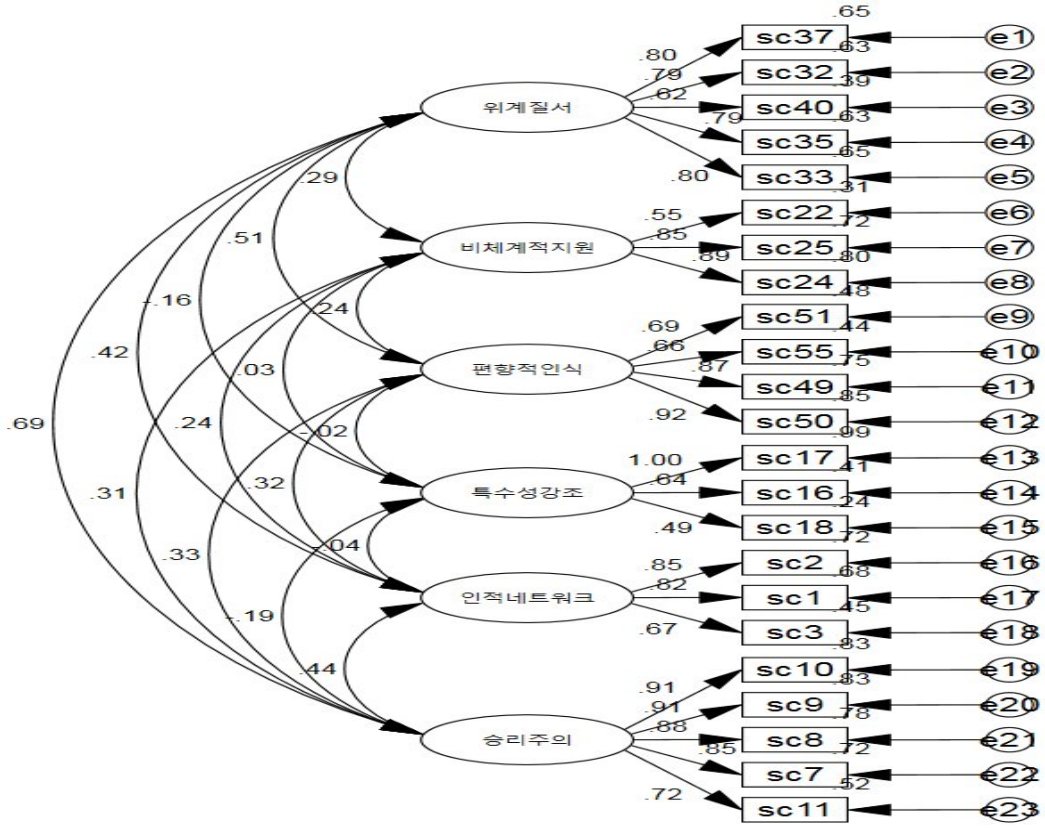

그림 3.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경로계수

Ⅳ. 논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문화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김병준과 오수학(2008)이 제안한 3단계 타당화 프로그램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장애인 스포츠문화 관련 문항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의 고찰,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에게 개방형 문장을 작성하게 하여 개괄적인 자료수집을 하여 설문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배제하고 장애인 스포츠문화와 관련된 예비판 척도 8요인(인적 네트워크, 승리주의, 특수성 강조, 비체계적 지원, 이론 경시, 위계질서, 관계 중시, 편향적 인식) 56문항을 작성하였다. 이후 예비판 척도 설문지 56문항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8요인으로 분류해도 좋다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Timmermand와 Lorenzo-Seva(2011)가 제시한 평행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행선 분석에서 random data의 95% 신뢰구간이 eigen-value보다 큰 경우 의미 있는 요인 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1요인부터 6요인까지는 원 자료의 eigen-value가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eigen-value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요인부터는 무선자료의 95% 신뢰구간 eigen-value가 원 자료의 eigen-value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그림 1>, 연구자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장애인 스포츠문화 척도 요인수

는 6개 요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6요인 32문항은 위계질서 9문항, 특수성 강조 6문항, 편향적 인식 4문항, 비체계적 지원 4문항, 인적 네트워크 3문항, 승리주의 6문항이었으며, 이론 경시와 관계 중시 요인은 제거되었다.

다른 한편, 연구자는 처음에 이론적으로 구성한 장애인 스포츠문화 척도가 8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8개 요인을 모두 살리기보다는 6개 정도의 요인을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Devellis, 2012)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여 연구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8개 요인구조를 각 문항이 다른 요인에 부하되는 경우(.4 이상)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이 연구결과에서는 6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3>. 연구자는 <표 3>에 제시한 요인구조를 통해 1번 요인은 전반적으로 군대식 문화, 강압적 분위기, 파벌 존재, 권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계질서'로 정의하였다. 2번 요인은 에너지, 역동적, 한계 도전 등의 내용이 부각되므로, '특수성 강조'로 정의하였다. 3번 요인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향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4번 요인은 계획적 지원 부재, 형평성 지원 부재, 지원 부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체계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5번 요인은 학연, 인맥, 특정인 중심 움직임의 내용이 포함되어, '인적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마지막 6번 요인은 결과 중시, 성과 위주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승리주의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에 대한 정의를 수행한 후, 연구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요인의 정의와 일치되는지 내용타당도를 다시 수행하였다(DeVellis, 2012).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위계질서 요인의 sc54(수준이 낮음), sc31(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문항은 위계질서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특수성 강조 요인의 sc42(단합 강조), sc41(결속력 강함), sc28(실기능력 중시), 승리주의 요인의 sc6(비장애인에게 배타적) 문항 역시 해당하는 요인과 일치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그래서 6문항을 제거한 다음,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각 문항의 개념은 정해진 요인의 개념과 일치하고, 요인계수 역시 .4 값 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의 상관은 -.436~.571 사이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된 장애인스포츠 문화의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판별타당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DeVellis, 2012). 이로 인해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는 6요인 26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6요인 26문항은 최대우도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추천되는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는데, 이때 CFI, TLI는 >.9, RMSEA는 <.08 기준을 임계치로 설정하였다(홍세희, 2000).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597.338(p<.001), df=284, TLI=.899, CFI=.912, RMSEA=.070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TLI 값이 임계치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CFI와 RMSEA 지수가 적합하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각 잠재변수가 설명하는 표준화계수 역시 .488 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sc21, sc34, sc36 문항에서 일차원성이 심각하게 위배되어 다른 요인 혹은 문항에 의해 설명되는 다차원성을 보유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연구자는 이러한 문항을 제거하였다(DeVellis, 2012). 이러한 3문항을 제거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349.609(p<.001), df=215, TLI=.947, CFI=.955, RMSEA=.053으로 나타나, TLI, CFI, RMSEA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수가 설명하는 표준화계수는 .487 이상으로 설명력이 높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위계질서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623 ~ .805이었고, 비체계적 지원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554 ~ .848이었고, 편향적 인식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663 ~ .924이었고, 특수성 강조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487 ~ .996이었고, 인적 네트워크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673 ~ .850이었고, 승리주의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723 ~ .911이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스포츠문화 6개 요인은 .732~.931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높은 신뢰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역시 -.193~.691 범위를 나타나, 전반적으로 판별타당도를 충족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각 잠재변수의 개념타당도, 판별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6요인 23문항을 장애인스포츠문화 척도로 확정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를 개정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원래 8요인 56문항을 구성하였으나,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론 경기(5문항)와 관계 중시(8문항) 요인이 제거되었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 역시 중요한 문항임을 상기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장애인 스포츠 문화에서 어떻게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할 때 고정된 6개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6개 정도의 요인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요인수를 고정하지 말고 장애인 스포츠문화를 정의할 때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개방적 요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문화 예비판 척도는 8요인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인적 네트워크 6문항, 승리주의 6문항, 특수성 강조 7문항, 비체계적 지원 7문항, 이론 경시 5문항, 위계질서 9문항, 관계 중시 8문항, 편향적 인식 8문항이었다.

둘째, 설문조사 후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2문항을 추출하였다. 즉, 위계질서 9문항, 특수성 강조 6문항, 편향적 인식 4문항, 비체계적 지원 4문항, 인적 네트워크 3문항, 승리주의 6문항이었다. 또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26문항을 추출하였다. 즉, 위계질서 7문항, 비체계적 지원 4문항, 편향적 인식 4문항, 특수성 강조 3문항, 인적 네트워크 3문항, 승리주의 5문항이었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한 6문항 26문항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는 6요인 23문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위계질서 요인 5문항, 비체계적 지원 요인 3문항, 편향적 인식 4문항, 특수성 강조 요인 3문항, 인적 네트워크 요인 3문항, 승리주의 요인 5문항이었다.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잘 확보하고 있어 한국 장애인 스포츠문화를 알아보는 측정도구로 사용하는데 유용한 측정도구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준, 오수학(2008). **체육학 연구방법**(제3판). 서울: 레인보우북스.

김영찬(1984). **교육인류학의 성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김용국, 성창훈(2007).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자기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특수체육학회지, 15**(3), 27-50.

서근원(2007). 교육학으로서의 교육인류학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0**(2), pp. 1-40.

서은철, 김지태(2015). 장애개념의 다중패러다임을 적용한 장애인스포츠인식척도 개발. **특수체육학회지, 23**(1), 13-37.

오광진(2009). 신체장애대학생의 통합체육지원서비스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특수체육학회지, 17**(1), 159-185.

오광진(2012).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특수체육학회지, 20**(2), 39-56.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교육 심리 사회 연구 방법론 총서 시리즈 21. 서울: 교육과학사.

이현수, 오광진(2005). 정신지체학생의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태도와 관여도 구조모형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3), 61-73.

이현수(2005). 정신지체학생과의 장애학생통합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인에 관한 연구. **특수체육학회지, 13**(1), 17-28.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Benson, J. (1998). Developing a strong program of construct validation: A test anxiety exampl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8*(1), 10-22.

DeVellis, R. F. (2012).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Durham, W. (1992). *Coevolution: Genes, culture, and human diversity*. Stanford: Standard University Press.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Y: Basic BooKs.

Harris, M. (1999). *Theories of culture in postmodern times*.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Timmerman, M. E., & Lorenzo-Seva, U. (2011). Dimensionality assessment of ordered polytomous items with parallel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6*(2), 109-220.

논문제출일 : 2016년 07월 27일
논문수정일 : 2016년 08월 30일
게재승인일 : 2016년 09월 20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ports Culture Questionnai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wang-Jin Oh*(*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Sports Culture Questionnaire for Disabled (SCQD) and to validate the questionnaire. A total of 231 adapted physical educators participated in the first survey. Initial data screening indicated that 7 participants did not meet the criteria. Final analysis included 224 adapted physical educator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hree step validation processing proposed by Kim and Oh (2008).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8 factors for the disabled sports cultures (Social networking , triumphalism , emphasizing specificity , non- systematic support, negligence of theory , hierarchy , relationship -oriented , biased recognition) including 56 items were determined through the item analysis for the pilot scale of SCQD. Second, 6 factors including 32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fir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rom the survey set and 6 factors including 26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seco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ird, 6 factors including 23 items were finally determined through the second exploratory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SCQD was considered as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concepts and contents independently by sub-factors.

Key word : Disabled Sports, 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Educator, Physical Educator, Sports Leader, Sports Leader for the Disabled

* kunokj11@hanmail.net

부록) 장애인 스포츠문화 측정도구

질문 내용
1. 장애인스포츠는 폐쇄적이다.(sc37)
2. 장애인스포츠는 권위적이다.(sc32)
3. 장애인스포츠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한다.(sc40)
4. 장애인스포츠는 파벌이 존재한다.(sc35)
5. 장애인스포츠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sc33)
6. 장애인스포츠는 지원이 부족하다.(sc22)
7. 장애인스포츠는 형평성 있는 지원이 없다.(sc25)
8. 장애인스포츠는 계획적인 지원이 없다.(sc24)
9. 장애인스포츠는 장벽이 존재한다.(sc51)
10.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sc55)
11. 장애인스포츠는 편견이 존재한다.(sc49)
12. 장애인스포츠는 선입견이 존재한다.(sc50)
13. 장애인스포츠는 에너지가 느껴진다.(sc17)
14. 장애인스포츠는 역동적이다.(sc16)
15. 장애인스포츠는 한계에 도전한다.(sc18)
16. 장애인스포츠는 학연이 중요하다.(sc2)
17. 장애인스포츠는 인맥이 중요하다.(sc1)
18. 장애인스포츠는 특정인 위주로 움직인다.(sc3)
19. 장애인스포츠는 결과를 중시한다.(sc10)
20. 장애인스포츠는 금메달 중심적이다.(sc9)
21. 장애인스포츠는 성과 위주다.(sc8)
22. 장애인스포츠는 일등만 중시한다.(sc7)
23. 장애인스포츠는 일류 선수를 좋아한다.(sc11)

위계질서: 37, 32, 40, 35, 33
특수성 강조; 17, 16, 18,
sc는 문항을 의미함

비체계적 지원: 22, 25, 24,
인적 네트워크: 2. 1. 3.

편향적 인식: 51, 55, 49, 50
승리주의: 10, 9, 8, 7, 11